

ch. 3. Positive Science: the Empiricist Way,

arranged by Kim Cheong-shin

1. the empiricist way: senses and particulars=> a gradual and unbroken ascent=> the most general axioms

1. ontology: 구체들. 이론과는 독립 존재. 관찰 기다림. (구조론)

2. methodology: 구체들의 형태에서 규칙성을 찾아냄. 기저에 깔린 구조, 힘, 또는 인과적 필연 등은 없다고 생각. 예측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론적 추상과 연역적 추론함. 귀납적 일반화는 이미 알려진 사례와 다음 사례들을 잇는 다리 구실. 예측과 설명에 모두 공통. (방법론)

3. epistemology: 오직 예측을 검증하고 지각함으로써만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음. (인식론)

II. Positivism (실증주의)

1. positive science: 경험주의를 견지. naturalistic. 합리주의 배격. 방법론적 개인주의. 'hard(양적)' 자료와 'soft(질적)' 자료들을 구분. (실증주의) ~~이론~~ & ~~구분~~ - ~~실험~~

2. logical positivism: 1930년대 비엔나 학파(Vienna Circle)로부터 나온 경험주의의 일파. 경험을 통해서만 세상 지식에 대한 주장이 정당화. 규칙성을 기록하는 것만이 가능. (논리경험주의)

III. a gradual and unbroken ascent

1. perception: 세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유일 원천. 구체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줌.

2. principle of induction: 알려진 사례들에서 진실로 밝혀진 것들=>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추론할 수 있게 해줌. 예측과 설명은 동전의 양면. ∴ 지각함으로써 베이컨의 두 번째 방법 시작, 귀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상승.

IV. Hume and Causation: 모든 과학이 인간 본성과 하나의 관계로 맺고 있다 생각.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소수의 원인들로 일반화 추구. 정규적인 상관관계만 알 수 있음 임의의 사건의 원인은 규칙적인 연쇄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 ~~확률~~ 인식론 핵심은 오직 빈도일 뿐.

V. positive economics: 이론은 언어+ 일군의 실질적인 가설들

프리드만

1. 언어로서의 구실: 실체가 없고, 일련의 동어반복. 그러므로 언어에 불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지 못함. a filing system로서 기능. 분류가능

2. 실질적인 구실: 이론은 - '설명'하고자 의도된 -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으로 판단되어야. 곧 가설의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경험과 예측한 바를 비교하는 것

VI. analytic-synthetic distinction

1. 흄의 구분. 1) matters of fact: 세상은 matters of fact로 이루어져. matters of fact에 대한 진술은 상황에 따라 진실 여부가 달라짐. 2) relations of ideas: 만일 반드시 옳은 진술이 있다면, relations of ideas에 대한 것.

2.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구분. 1) analytic statement 해당 진술이 가진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만 옳고 그름 달라짐. (동어반복) 예) 프리드만 이론의 구실 중 언어. 2) synthetic statement matters of fact에 따라 옳고 그름 여부 달라짐. 경험적 검증 대상. 예) 프리드만 이론의 구실 중 실질적 가설. 3) 주의: 분석적 진술(예, 모든 미혼남성이 결혼하지 않음)을 실제 세상의 사실로 생각하면 오류. 예) 합리주의자들은 기하학적인 진술이 (공간에 필요한 속성들을 묘사한 것이라 믿음. ~~de re~~) *tautology*

3. truth by convention: 모든 미혼남들은 정말로 결혼하지 않더라는 의문=> 답: 이런 '사실'은 우리의 언어습관에서 나옴. 진실 여부는 - matters of fact가 아니라 - 전적으로 인간 결정 따라 달라짐.

VII. 두 가지 의문

1. realistic assumptions 1) 가정의 비현실성=> 대답) 이론 관련 유일 문제는 어떤 모형이 좀더 성공적인 예측을 해내느냐임. 2) 'as if' 도입: 가정들을 현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다루면, 모든 이론의 '가정들'이 항상 그렇게 됨=> 'as if' 적용하면 여전히 진실일 수 있음. ∴ 이론에서 도출한 예측이 성공적인지의 여부만 중요.

2. the role of theory: 1) 경제학 제일 원칙: 모든 경제학적 행위자가 단지 합리적으로 행동. => 분석적이며, 동어반복. 만일 이것이 옳다면, '관습에 의한 진실' ∴ 이 원칙은 이론임을 알 수 있음. 2) 프리드만: 결국 이론의 적극적 구실 인정. 이제, 경제적 세계의 사실들은 언어에 종속되지 않음. 엄격한 경험주의적 접근이 일찍이 어떤 '보편적 공리'가 필요함을 발견했던 것.

VIII. discovery and validation : Figure 3.2: 1) definition: 'newly acquired facts'가 알려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려줌. 2) theory: 단지 귀납적인 일반화가 아니라, hypotheses의 원천으로 적극 구실.